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4월부터 차량모델별 등급 21개로 세분화

- 보험개발원은 ‘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’의 일환으로 자차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별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는 차량모델별 등급제도 개선(안)을 마련하고 4월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함.
 - 차량모델별 등급이란 교통사고 때 차의 견고성이나 내구성 등에 따른 수리비 차이, 부품 가격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매긴 등급으로 차량의 종류가 늘어나고 수입차 판매가 확대 되면서 차량별로 자차 보험료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보완한 것임.
 - 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, 제작사의 부품공급 원활화 및 부품단가 인하 등을 유도한다는 취지임.

- 차량모델 등급 평가를 도입한 2007년에는 11개 등급(손해율 상대도 $\pm 25\%$)으로 산출 하였으나, 금번 제도개선으로 21개 등급($\pm 50\%$)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내에서 운행 중인 232개 차종의 모델별 위험등급을 재조정함.
 - 등급은 차량모델별로 고유하게 부여되므로 전체 보험회사가 동일하나 등급별 적용률은 각 보험회사에서 자사 경험실적을 반영하여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사별 요율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 - 단, 일부 통계량이 확보되는 외산차의 경우에는 모델별로 등급을 산출함.

- 이번 개선방안으로 그 동안 자차보험료를 내는 액수에 비해 보상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았던 차는 보험료를 높이고, 반대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책정해 같은 배기량 차량의 경우에도 보험료 차이는 최대 3배까지 벌어지게 됨.
 - 국산차의 자차보험료는 평균 27만원으로 향후 등급에 따라 1등급은 40.5만원, 21등급은 13.5만원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남.
 - 한편, 이 같은 보험료 인상·인하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 효과만큼 기본보험료를 조정하여 전체 가입자의 수입보험료는 변동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임.

(차량모델별 등급제도 개선(안),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, 3/4)